"정유회사부터 원가 공개하라"

판매가 공개 압박받는 주유업계 주장

광주·전남 1,200여회원사 "유통마진 3~5% 불과"

"순익 1조원대 챙기는 정유사들이 고유가 책임져야"

"주유소는 겨우 3~5%의 유통마진을 남기는 반면 정유사는 무려 1조 수천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챙깁니다. 그런데도 주유소만 고유가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광주·전남지역 1천200여개 회원사를 비롯한 (사)한국주유소협회가 정유사와 대리점이 배제된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는 지난 19일 "정유사가 공급가격을 주간 단위로, 지역별로, 업체별로 상세하게 공개하면 정부가 추진중인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임영우 사무국장은 "정유사들의 공급가격이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주유소 뿐 아니라 여러 수요처에서 더 낮은 가격에 달라고 따지게 될 테고 그러며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들의 유가부담을 덜어주려면 소매단계인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기에 앞서 과점사업자인 정유사들의 경쟁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거래처별 가격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정유사들의 세부적인 공급가격은 영업상 중요한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시스템'은 정부가 과점상태인 공급자 단계의 경쟁은 방치한 채 소매단계인 주유소에 대해서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3천882개에 불과하던 전국 주유소수가 2007년에는 1만2천139개로 증가한 반면 국내 석유소비는 정체됨에 따라 주유소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유소당 월평균 판매량은 같은 기간동안 2천7드럼에서 1천26드럼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매출은 가격자율화 이전인 1996년 12조 5천447억원에서 2006년 26조 5천449억원으로 2.1배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율은 10.9%에서 4.4%로 되레 줄었다. 2006년 일반 소매업종의 영업이익률이 10.6%였던 것과 비교하면 주유소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게 주유소 협회 관계자의 얘기다.

광주 A 주유소 대표는 "대부분 주유소들의 채산성을 무시한 채 주유소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유류세 인하와 공급자간 경쟁촉진, 불법 부정석유류 근절을 통한 세수탈루방지 등 실질적인 유가 인하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공급자인 정유사와 대리점의 판매가격 조사·발표주기를 1주일에서 월단위로 늘려 소비자들의 알권는 축소한 반면 주유소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직접 보고토록해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발표하는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시스템'을 추진중에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전남지역 레미콘 공급 정상화

건설현장 활기 … 수도권은 협상 결렬

레미콘 납품 단가 인상을 둘러싸고 중단됐던 전남지역 레미콘 공급이 하루 만에 재개되면서 지역 내 건설현장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수도권 등 전국 건설현장의 경우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의 협상 결렬로 인해 이틀째 공급이 중단된 데다 광주도 일부 건설현장의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광주·전남레미콘협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레미콘연합회측의 방침에 따라 공급중단에 나섰던 전남지역 38개 회원 업체의 레미콘 공급이 하루 만에 재개됐다.

전날 전남 레미콘 업계는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목포, 순천, 강진·해남, 영광·함평 등 4개 권역의 레미콘 공급을 전면 중단했으나 추후 협상을 전제로 정상공급에 나섰다.

광주도 지역 내 100여개 현장을 둔 건설업체들이 레미콘 가격 12~13% 인상에 합의함으로써 공급 중단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는 ㎥당 5천750원 가량 오른 5만1천100원선에 레미콘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는 수도권 소재 1군 건설업체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등이 레미콘가격 인상을 놓고 50여곳의 현장에서 막바지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가격을 올리지 않은 현장에 대해선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서울에서는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 인상폭과 공급시기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유행 예감 줄무늬 넥타이 20일 광주신세계백화점 넥타이 코너에서 고객들이 봄빛을 닮은 화사한 색상에 심플한 줄무늬 넥타이를 고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호전

상의, 지역 100개 업체 2분기 전망 조사

백화점·편의점·방문판매 업종 매출 증대

광주지역 2·4분기 소매유통업의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슈퍼마켓 등 광주지역 1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도 2·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기준치=100)는 '10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분기(93)전망치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1·4사분기 이후 3·4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던 지수가 지난 '08년도 1·4분기에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1분기 만에 상승 반전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주가불안, 유가와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상승, 물가상승 등 소비심리 위축요인이 상존해 있으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백화점, 편의점, 방문판매 업종 등에서 매출 증대를 예상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RBSI는 소매유통업체들의 현장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의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전체 응답업체 분포를 보면 경기가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28.8%(전분기 23.4%), 악화한다고 예상한 업체는 27.5%(전분기 30.9%), 불변이라고 예상한 업체는 43.8%(전분기 45.7%)로 조사돼 호전을 전망한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열린다

6월29일~7월2일 서울 코엑스

제 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가 오는 6월29일부터 7월2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이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사회보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열리는 안전보건분야 최대규모 국제 행사로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2천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사회 각 주체의 책임'이라는 모토 아래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 전략과 프로그램 ▲작업조건 변화가 근로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산업안전보건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네 가지 주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첫날인 29일에는 각국의 노·사·정 대표와 안전보건 전문기관 대표, 기업체 CEO등이 참석하는 '안전보건대표자회의'가 개최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 노조 잔업근무 반발

기아자동차가 생산목표에 맞춰 낮과 밤 잔업근무 2시간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기아차는 20일 현재 낮과 밤 근무 8시간씩에 잔업 2시간씩으로 짜여진 기존의 '10+10'일괄 근무체계 대신 판매가 부진한 차종의 경우 생산량을 줄이고 이에 맞춰 잔업을 없애자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

기아차 관계자는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낸 데다 올해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의선 사장 대신 전문 경영인 김익환 부회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이종태기자 jtlee@

수완지구 '우미린' 단지내 상가 분양

우미건설은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의 '우미린'아파트 단지내 상가 16호를 분양한다.

분양면적은 호당 38~134㎡로, 상가 인근에 1천232가구의 대단지를 끼고 있다.

분양은 오는 26일 접수를 받은 후 27일 '우미린' 1차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961-5505.

내달 광주서도 '와이브로'

KT, 전남대 첫 시범서비스

이르면 4월부터 광주에서도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KT전남본부와 전남대에 따르면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남대 캠퍼스에 KT 와이브로 시스템인 '핫존(Hot Zone)'을 구축해 이르면 4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 U-캠퍼스 시대를 열게 된다.

KT전남본부는 당초 9월 개통 예정이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전남대의 요청에 따라 5개월 앞당겨 개통할 예정이다. 현재 시스템 구축은 마무리 단계이며 건물내 음영지역의 최소화를 위해 도서관, 학생회관 등 실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내중계기를 설치하고 있다.

전남대에 와이브로 서비스가 개시되면 시속 60㎞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노트북 컴퓨터나 고성능 휴대용 컴퓨터(UMPC·울트라 모바일 PC), PDA(개인 휴대 단말기) 등으로 초당 4Mbps급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6MB 이메일을 전송할 경우 기존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가 15분 걸린데 비해 와이브로는 1분만에 전송이 가능하다.

또 캠퍼스 내에서는 이동 중에도 실시간 동영상 강좌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KT전남본부는 와이브로 확산을 위해 16만원 상당의 USB 모뎀을 오는 8월31일까지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월 이용료는 1만3천원.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도
·금남로 대로점 대지 231㎡(70평) 5층 20억
·충장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충장로 대지 208(63평) 4층 18억
·충장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황금동 대지 132(40평) 3층 10억
·광산동 구시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불로동 천변대로변 코너 대지 294(89평) 4억
·용봉지구 3면도로 단층 대지 1,190(360) 8억
·월산동 대로변 대지 390(118평) 6층 6억5천만

토지매매
·운림동 4차선접 2,627㎡(804평) 당 160만
·운림동 녹지 3,966(1,200평) 2억4천만
·월산동 대로접 주거지 1,090(330평 4억8천만
·봉선동 25m접 2,315(700평) 3.3㎡당 250만
·도천동 자연녹지 16,530(5천평) 3.3㎡당 75만
·도산동 전철역앞 주거지 6,611(2천평) 20억
·인동동 주거지 11,900(3,600평) 3.3㎡당 80만

전원주택
·청풍동 주거지 760㎡(230평) 당 70만
·금곡동 주거지 1,490(450평) 1억4천만
·운림동 대지 463(140평) 한옥 1억1천만
·지산동 녹지 3,640(1,100평) 3억5천만
·담양 창평 소재지 대지 2,300(700평) 2억
·화순 남면 대지 660(200평) 한옥 4천만

임야
·화순 도곡 관리지역 52,900㎡(1만6천평) 당 8만
·화순 도곡 야산 105,700(3만2천평) 3억
·화순 도곡 3,200평 3.3㎡당 6만
·화순 남면 관리지역 165,000(5만평) 5억
·화순 한천 218,000(6만6천평) 3.3㎡당 6천원
·화순 이양 53,000(1만 6천평) 9천만

기타부동산
·조대 대로변접 대지 760㎡(230평) 8억
·금호동 중원@ 대로접 330평 3.3㎡당 400만
·화순 계곡접 6,600(2천평) 8천만
·보성읍 자연녹지 30,000(9천평) 1억3천만

상무랜드공인중개사
☎(代)383-5221 핸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빌딩
• 대지600 건물1,352 보36억/월세3,100만원(지역최고상권)융자12억매가79억(대물교환가능)
• 대지260/건2,000, 보20억/월4,000만원 융자18억 매가65억
• 대200/건725, 보증금8억 월1,700만원(신축) 융자8억 매가34억
• 대200/건900, 보증금30억 월세1,100만원 매대가55억
• 대300/건1,200 보1억/월800만원 매매가15억 5천
• 대125/건175, 보1억/월800만원 매매가 15억5천

▶땅
(상무지구)
• 2,800㎡(850평) 3.3㎡당 1,200만원
• 727㎡(220평) 3.3㎡당 1,200만원(유흥가)
• 450㎡(136평) 3.3㎡당 850만원(유흥가)
• 330㎡(100평) 3.3㎡당 800만원(사창역입구)
(기타지구)
• 자연녹지 대로변3,000평(예식장,학원적합 평당180만원)
• 주거지역800세대 아파트입구877㎡(266평) 3.3㎡ 당350만원(슈퍼적합)
• (농장)광산구동산동73,000㎡ (2만2천평) 농장 3.3㎡당 11만원(동산동)
• (장동동) 3,760㎡(1,140평) 평당40만원

▶병원·학원·수퍼·식당 기타
• (하남삼성홈플러스옆 사거리차도) 근린지구1,652㎡(500평) ㎡당 700만원
• (금호지구)1,200㎡ (360평)3.3㎡ 당 350만원 (병원 학원 식당적합)
• (수완지구주공아파트정문앞) 대지528㎡(160평)3.3㎡당470만원

▶모텔·호텔매매·시우나
• 객실44개 융자16억 매가27억
• 객실70개 매매가88억
• 대지500/건물1,900 시우나 매가39억

★24시간 전화 물건 접수합니다★